



(@ 7H_design님 커미션입니다.)

이곳은 인간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상실한 세계.
모든 것은 우리의 생활 근간에 깔려있던 생명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멋대로 자연을 주무른 벌이라도 받듯 날로 죽어 떨어지는 곤충들, 누렇게 질려 숨을 다 한
식물, 미지의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동물들,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하던 인간의 종말.

이제 지구에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겨우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탐사자들뿐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또한 다른 생명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말겠지요.

... 그러던 어느 날, 뒷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익숙하고도 낯선 어느 짐승의 울음소리가...

「시나리오 정보」

추천 인원: 1~4인

배경: 근미래

플레이 타임: (ORPG 기준 예상) 2~4시간

탐사자 난이도 : ★★☆☆☆

수호자 난이도 : ★★☆☆☆

「유의사항」

- **동물 학대, 유혈** 등에 대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수호자는 사전에 이를 반드시 플레이어들에게 고지해주세요.
- 카오시움 출판, 도서출판 초여명의 번역본인 크툴루의 부름 제7판을 사용하는 비공식 팬메이드 시나리오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음을 알립니다.
- 룰북 없는 키퍼링,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시나리오 스포일러, 악의적인 시나리오 비하 발언을 금합니다.
- 모든 사항에서 개변은 자유롭습니다. 문의하실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개변하시되, 개변한 시나리오의 재배포는 금지합니다.
- 모든 문의는 시나리오 배포 계정 (@Kamurocho_)로 부탁드립니다.

진상

이곳은 인간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상실한 세계. 원인을 알기 위해선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인간들은 날로 오만해져 갔습니다.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내거나, 자신들보다 약한 짐승들을 이유 없이 핍박하거나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결국 자기 자신들마저 멸망의 길로 밀어 넣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요.

지구의 생명체들이 스스로 멸망을 향해 걷는 것을 바라보던 바스트(물북 P.318)는 이 행성에 새로운 주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앞서 여러 평행 세계에 시험을 해봅니다. 어떤 세상에선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말살해보고, 또 다른 세상에선 태초부터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세계의 균형은 맞춰져야 하는 법. 인간이 없는 세상에서는 동물과 식물들 또한 살아가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바스트는 여덟 번의 실험 끝에 균형과 공존을 위해 다른 방법을 떠올립니다. 아홉 번째의 세상에 적용시킬 새로운 방법은 바로 작은 짐승의 몸에 갇혀있던 자신의 수하를 새로운 인류로 변이시키고, 본래 인간이었던 이들을 점차 짐승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신들이 학대하던 동물들로 변이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 혹은 지인인 것도 모르고 서로를 죽이고 상처 주기 시작합니다. 그중 몇 명은 이러한 굴레를 눈치채고 스스로 동면(크툴루 신화 대마도서 P.56)의 저주를 걸어 깊은 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끈질기게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남겨진 멸절한 인류는 탐사자 일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바스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양이 한 마리를 탐사자들 앞에 노출시킵니다. 고양이는 탐사자들을 바스트의 사원으로 불러들여 자신을 돕도록 유도합니다. 탐사자들이 이 고양이를 도울수록 고양이는 탐사자, 즉 인간의 형상과 닮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사람의 형상을 띠게 될 고양이는 끝내는 탐사자들을 흡수하고 새로운 인류가 되고자 합니다. 탐사자들은 이를 저지하고 멸망한 세계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될지, 순순히 미래를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 시나리오 내에서 탐사자들이 종이에 써진 내용을 무시한 채 지나치면 외관이 점차 짐승(고양이)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정도는 수호자께서 적절히 개변하여 진행해주세요.

도입

지금은 2090년, 오직 텅 빈 건물들 사이로 바람 소리만이 불어오는 세계. 녹빛도 짐승의 그림자도 더는 보이지 않게 된 지 오래입니다. 탐사자들만이 이 텅 빈 세계에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있던 그때, 뒷산에서 아주 낮설고도 익숙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 **소리를 들어볼 경우** | 귀를 기울이거나 <듣기> 판정에 성공할 시, 이 울음소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고양이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뒷산으로 올라갈 경우** | 이젠 텅 비어버린 산. 퍼석한 흙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올라가면 고양이 한 마리가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앉은 자리 아래에는 쪽지 하나가 깔려있습니다.

▷ **고양이를 살펴볼 경우** | 고양이는 애절한 울음을 내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직전까지 관리를 해주었던 것처럼 윤기가 도는 털결이 눈에 띕니다.

▷ **쪽지를 살펴볼 경우** | 탐사자들이 쪽지를 살펴보려 하면 고양이는 순순히 자리를 비켜줍니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만이 덩그러니 적혀 있습니다.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이 세상을 구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고양이의 옆에는 산 내부에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손상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백색의 돌이 쌓여있고, 돌들 사이사이에 드물게 녹색의 잎사귀들이 피어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간 인적은 없는지 주변은 고요하고 잠잠하기만 합니다. 탐사자들이 유적지를 바라보고 있자면 고양이가 들어가자는 듯 입구 앞을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탐사자들이 내부로 들어간다면 「유적지_1층」을 진행해주세요.

유적지_1층

유적지 안으로 들어서면 내부는 고요함에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돕니다. 어째선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유적지의 1층은 기둥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어 원형이 훼손되긴 했지만 널따란 광장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총 세 개의 방이 놓여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하나가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사자들이 1층에 진입하면 고양이는 무언가를 바라는 듯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 **고양이를 살피** 경우 | 탐사자들이 고양이를 살피면 고양이는 긴 울음소리를 내더니 빠르게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 첫 번째 방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서면 바닥에 **관**이 즐비합니다. 먼지가 뿌얇게 쌓인 관은 오랫동안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듯합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 **관을 살펴볼** 경우 | 검은빛이었을 관 위에는 먼지와 흙 따위가 쌓여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의 외관을 살피는 탐사자는 관 위에 숫자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숫자를 살펴볼** 경우 | [2024.05.14 ~ 2124.05.14] 라는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짜를 표기해둔 듯합니다.

▷ **관을 열어볼** 경우 | 안에는 곤히 잠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느릿하게 뛰는 심장을 가진 이들은 손에 둘둘 말린 종이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 종이를 살펴볼 경우 | 안에는 누군가에게 남기는 편지 따위가 적혀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세상은 처참한 끝을 맞이하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스스로 잠드는 것을 택합니다.
남겨진 이가 있다면 부디 안온한 끝을 맡길 기도합니다.

▷ 그림을 살펴볼 경우 | 벽면에는 동물들이 평화롭게 식물을 뜯어 먹는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날카로운 돌 따위의 물건으로 투박하게 그려둔 모양새입니다.

❖ 두 번째 방

식량창고라도 되었던 모양인지 내용물이 가득 찬 자루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곡물 따위고, 간혹 곰팡이 핀 치즈나 숙성된 햄 정도가 보입니다.

* 탐사자들이 적혀진 것 이외의 식재료를 찾는다면 수호자께서 판단하여 적당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방을 더 자세히 둘러보면 바닥에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는 아마 배가 많이 고플 겁니다. 함께 식사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 세 번째 방

오래된 주방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요리를 하던 공간이라 그런지, 각종 도구와 재료가
남아있습니다. 탐사자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면 고양이는 공간을 배회하며 요란스레 울기
시작합니다. 배라도 고프는 걸까요?

* 탐사자들은 이곳에서 고양이를 위해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수호자께서 적절하다 여기는 방향으로 진행해주세요.

▷ **고양이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 고양이는 탐사자들이 무엇을 제공하든 오랫동안 굶주린 것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네 발이 아닌 양발로 서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울음소리나 외관은 이전 그대로입니다.

❖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나선형의 계단이 놓여있습니다. 계단에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탐사자들이 내려간다면 「유적지_지하 1층」을 진행해주세요.

유적지_지하 1층

그나마 탁 트였던 1층과 달리 지하로 내려오면 강렬한 음산함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무언가 달리는 소리가 울리고 탐사자들의 곁에 있던 고양이는 겁에 질린 듯 뒤에 숨어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벽 쪽으로 놓인 하나의 **방**이 보입니다. 붉은색 깃털로 구분되어 있는 방입니다. 중앙 바닥에는 **구겨진 종이**와 **버려진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또한 놓여있습니다.

▷ **구겨진 종이를 살필 경우** | 안에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을 치워주세요.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 **버려진 옷가지를 살필 경우** | 마치 사람의 육체만이 증발해버린 듯, 옷가지들이 쓰러진 자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는 표지가 뜯어진 **노트** 하나가 놓여있습니다.

▷ **노트를 살필 경우** | 누군가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을 피해 숨어들어왔는데 나 말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걸까?

이 사원은 기이하다. 하루하루 머물 수록 점점 내가 아니게 되어가는 기분이 든다. 거울 속에선 지옥같은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고함을 질러댄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거울 몇 개를 깨뜨려 버렸다. 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점점 변해가는 내 몸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서이다. 이곳에 온 건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었나봐.

❖ 붉은 깃털 방

입구 옆에 붉은 깃털이 붙어있는 방입니다. 안에는 **거울들**이 즐비합니다. 지지해주는 부품이 빠져 흔들거리고 있는 선반에는 **책** 한 권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습니다.

▷ **거울을 살펴볼 경우** | 총 아홉 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각각의 거울마다 아래로 이름표가 붙은 듯합니다. 다만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은 첫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의 거울 뿐입니다. 다른 거울들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시킨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 바스트가 이전에 시험해본 세상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울입니다.

▷ **첫 번째 거울을 살펴볼 경우** | 첫 번째 거울에는 커다란 금이 가 있습니다. 깨지기 직전인 거울에 비치는 것은 기이하게도 풀이 무성하게 자란 도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곤 보이지 않는 고요한 풍경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름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실수]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 **네 번째 거울을 살펴볼 경우** | 무수한 시체들이 눈에 띄니다. 시체들의 주변엔 핏자국이 낭자하고, 고장난 무기들만이 주변을 처량하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시체들은 하나같이 경악에 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본 탐사자는 **이성 판정[0/1D3]**을 합니다. 이름표를 살펴볼 경우 [네 번째 말살] 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 다섯 번째 거울을 살펴볼 경우 | 모든 것이 불타버린 땅 위에 쓰러진 동물들의 사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흔적 따윈 눈을 씻어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름표에는 [다섯 번째 오판(誤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 아홉 번째 거울을 살펴볼 경우 | 거울을 바라보면 당장은 평범하게 탐사자들이 비칠 뿐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계속 보고 있자면, 갑작스레 거울 속 탐사자들의 뒤에서 무언가 일어나더니 빠르게 돌진해오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고 있던 탐사자는 <회피> 판정을 해주세요. 판정에 실패할 경우 달려온 무언가와 부딪히고 맙니다. 분명 거울 속의 탐사자가 부딪혔음에도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 달려온 것을 살펴볼 경우 | 탐사자들에게로 달려온 것은 거대한 짐승. 아니, 사람? 사람과 들짐승의 모습이 엉망진창으로 섞인 무언가가 탐사자들을 노려보며 서 있습니다. 이를 본 탐사자들은 **이성 판정 [1/1D4]**을 합니다.

탐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그것은 거울 속의 탐사자들을 붙잡고 늘어지며 ‘변하기 싫다.’,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 ‘차라리 죽여달라.’ 따위의 절규를 내뿜습니다. 탐사자들은 거울 속의 그것을 직접 죽일 수도, 단순히 거울을 깨거나 떠나버리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할 경우 거울 속의 그것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어느 순간부터 몸이 짐승과 섞이기 시작했다.
- 2)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
- 3) 이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탐사자 일행이 특별한 것이다.
- 4) 우릴 돕고 싶다면 거울을 깨줬으면 한다.

탐사자들이 거울을 깬다면 고양이는 크게 안심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이윽고 윤기가 돌던 털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현상은 맨살이 전부 드러나고 나서야 멈춥니다.

▷ **책을 살펴볼 경우** | '죄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이 저지른 다양한 잘못과 과오들이 적혀있습니다. 그 중, 메모 하나가 눈에 띄니다.

어리석은 이들을 언제까지 지구의 주인으로 두어야 할까?

❖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나선형의 계단이 놓여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계단 옆 벽면에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단 점입니다. 탐사자들이 계단으로 향하면 여덟 마리의 고양이들이 계단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외관은 모두가 익히 '고양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모양새로, 특이한 점은 찾을 수 없습니다. 탐사자들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유적지_지하 2층」을 진행해주세요.

▷ **그림을 살펴볼 경우** | 인간 형상을 한 것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물들이 평화로웠을 초원을 뒤돌아보며 달아나는 모습이 퍽 디테일합니다.

유적지_지하 2층

고양이와 함께 아래로 걸음 하면 훈훈한 기운이 탐사자들을 반깁니다. 지하 2층을 바라보면 가운데에 큰 불을 피운 채 주변을 둘러싼 **무언가**들이 보입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방**들이 몇 개 보이지만 문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열려있는 곳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곳 또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 **무언가를 살펴볼 경우** | 불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것은 지하 1층에서 보았던 것과 흡사한 생김새의 인간입니다. 주둥이만 개의 형상으로 변한 사람, 하반신이 고양이와 같이 변모한 사람 등, 엉망으로 변이한 모습들입니다.

▷ **무언가에게 말을 걸 경우** | 탐사자들이 지하 2층에 내려오는 시점부터 그들은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짧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전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짐승이 사람으로, 사람이 짐승으로 변해가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변이를 막을 수 없어 모두 체념한 상태이며 가능하다면 이런 짓을 벌인 바스트와 그 수하인 고양이를 해치고 싶어 합니다.

- 1)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다.
- 2) 우리들은 너희와 같은 인간이었다.
- 3) (지하 1층의 거울에 대해 물어볼 경우) 그곳에 비치는 것은 다른 세계의 단편들이다. 우리와 그들이 다른 점은 이성을 잃었냐, 잃지 않았냐 뿐이다.

▷ **방을 살펴볼 경우** | 탐사자들이 방 근처를 기웃거리면 날카로운 시선이 쏘입니다. 불가 주변에 앉은 이들은 탐사자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켜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은밀행동> 판정에 성공하거나 적절한 연막작전이 필요합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 시체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유독 어두운 주변을 둘러보면 돼지나 염소 따위의 짐승의 **사체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벽면**이 눈에 띕니다.

▷ **사체들을 살펴볼 경우** | 일부 발굽들이 사람의 손가락처럼 변이된 사체들에게선 물어뜯기거나 핏자국인 상처들이 보입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는 이미 굳은 지 오래입니다. 더 자세히 살피거나 <관찰력> 판정에 성공한 탐사자는 이들 중 특정 손이 찢어진 종이를 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이를 살펴볼 경우** | 간략한 문장 하나만이 남아있는 쪽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최소한의 애정을 보여주시길 청합니다.

▷ **벽면을 살펴볼 경우** | 짐승을 쫓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의 신체가 자신이 쫓던 짐승의 것으로 변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광경을 도망치던 동물들이 뒤돌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그림의 아래에는 문장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쫓던 것으로 죽게 될 것이다.

탐사자들이 대화를 끝내거나 다음 층으로 내려가려고 할 경우 불가에 앉은 이들이 먼저 말을 걸며 하나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탐사자들을 따라다니는 고양이를 자신들에게 넘겨주면 탐사자들에게 쓸모 있을 만한 정보를 하나 준다는 제안입니다. 고양이를 넘긴 후 처분에 대해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도 해주질 않습니다.

▷ **고양이를 넘길 경우** | 불가에 앉아있던 이들은 스물스물 탐사자들에게로 다가오더니 이내 한입에 고양이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의 근원이다.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 라는 말만을 남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를 삼킨 이에게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부 쪽이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방금 삼킨 고양이가 뱃가죽을 뚫고 밖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에 젖은 고양이는 점차 앞발가락이 길어지고, 먹이기 이전보다 덩치 또한 커진 상태입니다. 이를 본 탐사자는 **이성 판정[1/1D4]**를 합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탐사자들을 따릅니다.

▷ **고양이를 넘기지 않을 경우** | 불가에 앉아있던 이들은 아쉽다는 눈치를 보이다가 탐사자들에게 ‘앞으로 마주할 변화를 받아들여라. 그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만을 남기고 관심을 거둡니다. 고양이는 크게 만족한 기세로 탐사자들의 곁에 붙어 애교가 섞인 목소리로 울어댑니다. 이윽고 이전보다 덩치가 커져 성인 허벅지를 훌쩍 넘는 키로 변해갑니다.

❖ 계단

위층에 있던 몇 마리의 고양이들이 어느새 내려와 탐사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래는 아래로 내려가는 나선형의 계단이 놓여있어야 하지만… 이런저런 부속물들이 잔뜩 떨어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선 자재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수호자께서 탐사자들의 선언에 맞게

적절한 판정을 해주세요. 어떤 방법을 쓰든 탐사자들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유적지_지하 3층」을 진행합니다.

유적지_지하 3층

다른 층과는 사뭇 다른 고요함이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서관을 이루고 있던 것처럼 돌로 만들어진 선반에는 낡은 책들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바닥에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또한 놓여있습니다.

▷ **낡은 책들을 살펴볼 경우** | ‘인간의 욕구 이론’이라는 제목의 책이 비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메모까지 적혀있군요.

1단계 | 음식, 수면, 주거 등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

2단계 | 신체적, 감정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길 바라는 욕구

3단계 | 소속감이나 애정을 바라는 욕구

4단계 | 소속된 집단에서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것이 되고자 하는 욕구

5단계 |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

모든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그것을 인간으로 부를 수 있는가?

▷ **그림을 살펴볼 경우** | 짐승들이 떼로 죽어있는 형상입니다.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을 살피던 탐사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 **종이를 살필 경우** |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이 적혀 있습니다.

보살피는 아이에게 당신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세요.

탐사자들이 고양이에게 단어나 문장 따위를 가르치면 고양이는 곧바로 소리내어 탐사자들이 가르쳐준 것을 따라 읊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고양이의 얼굴이 우그러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과 꼭 닮은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에 충격을 받는 탐사자가 있다면 **이성 판정 [0/1D3]**을 해주세요.

사람의 얼굴로 변한 고양이는 이윽고 탐사자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배웠던 말을 중얼거리는데 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거나 하는 식으로 대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탐사자들이 대화에 응해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조잘거립니다.

❖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나선형의 계단이 놓여있습니다. 계단 앞에 선 탐사자는 <듣기> 판정을 합니다. 성공할 경우 아래쪽에서 각종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섞여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사자들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유적지_지하 4층」을 진행해주세요.

유적지_지하 4층

더는 내려갈 계단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선 이곳이 마지막 종착지인 듯합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탐사자들을 따르던 고양이는 점차 앞 발가락이 길어지고, 굽었던 등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합니다.

지하 4층의 **천장**은 거대한 돔과도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중앙에선 시끄럽게도 울부짖는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너진 방의 입구 앞으로는 벽돌들이 가득 쌓여있고, 온 벽면에 **붉은 글씨들**이 적혀 있습니다.

▷ **짐승들을 살펴볼 경우** | 실 새 없이 울어대는 돼지나 고양이, 개 따위의 짐승이 주변을 빙빙 돌며 슬프게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연히게도 대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 **천장을 살펴볼 경우** | 짐승의 몸을 찢고 사람이 튀어나오는 그림이 제법 실감 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 **붉은 글씨들을 살펴볼 경우** | 대부분 휘갈겨 쓰거나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지만 몇 개는 온전한 글씨체로 적혀있습니다. 그중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추려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어리석은 이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주어야 하는가?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이젠 답을 내렸다.

나의 수하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남은 인류들은 자신이 먹고 즐기던 것들로 변해 죽게 될 것이다.

부디 저항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길.

탐사자들이 붉은 글씨들을 읽고 나면 지금까지 함께 해 온 짐승의 몸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등의 가죽이 찢적 갈라집니다. 그 안에서 피와 함께 나오는 것은… 사람, 보다 완전히 탐사자들의 형상을 모방한 사람이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본 탐사자들은 **이성 판정[1/1D4]**을 해주세요.

가죽을 찢고 나온 사람은 비틀거리며 탐사자들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봐준 것이 있으니 선택지를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새로운 인류로 받아들이고 짐승으로 변이해 멸망한 세계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을 죽일 것’입니다.

탐사자들이 짐승으로 변이해 사는 것을 택한다면 END1, 전투를 택해 이긴다면 END2을 진행해주세요.

NPC의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이 2

근력 105 건강 80 크기 65 민첩성 35
지능 55 정신력 75

체력 14
평균 피해 보너스 : +1D6
마력 15
체구 2
이동력 6

근접전 70% (35/14), 피해: 1D6 + 피해 보너스
회피 17% (8/3)

「엔딩 분기」

END 1 > 짐승으로의 변이를 택한다.

END 2 > 전투에서 이긴다.

END 1. 새로운 도약

> 짐승으로의 변이를 택한다.

탐사자들이 선택을 마치면 점차 몸에서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팔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기이한 털들과 뭉툭해지는 손가락, 목소리를 내어보아도 짐승의 울음밖에는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마침내 두 발로 서있는 것이 어색해지는 순간, 새로운 인간은 탐사자들을 두고 등을 돌립니다.

결국 탐사자들에게 남은 것은 폐허가 된 터전, 그리고 그 터전에서 살아가야 할 짐승의 몸뚱아리입니다.

누군가에겐 끝인 것이 다른 사람에겐 시작이 되며, 세계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칩니다.

혹시 모르죠, 먼 시간이 흐르면 우리로부터 또 다른 인류가 태어날지도...

＞ 탐사자들은 각종 짐승으로 변이해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END 2. 살아있는 자들의 도시

＞ 전투에서 이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남은 것은 지독한 고요뿐입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한낱 고깃덩이로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우리는 삶을 택했습니다. 비록 세계는 남은 것 하나 없고, 푸르름이라곤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지만 이 세상은 그럼에도 탐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허 속에서 새로운 삶을 세울 시간입니다.

＞ 탐사자들은 그들만이 남은 세계에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